해외 금융 · 시장 동향

2008. 10. 15(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발한 금융시장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해외 금융 및 시장 정보를 해외 지부, 주요 언론 및 연구소 등을 통해 입수, 정리하여 매일(월~금) 전달합니다. 이번 사태로 겪고 계신 애로가 있으시면 팩스나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팩스) 02-6000-6190 (이메일) namjin@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외환 금융

■ 미국 신용경색 완화 조짐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10/14(현지시각) 오전 부시 미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미국의 신용 경색이 완화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미 정부가 구제금융 7,000억 달러 가운데 2,5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시티그룹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지분을 매입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당분간 피보험은행간 발생하는 신규 대출금을 대부분 보증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은행간 대출금리(LIBOR)가 소폭 하락하면서 신용 경색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채가격은 하락하고, 수익률은 증가세를 보였다.

(2008.10.14 4pm기준, 단위: %)

은행간 대출금리 (LIBOR)	환율		원유(US\$)	금
	Euro/\$	Yen/\$		
4.64(△0.57)	1.3556	101.88	79.15(△2.04)	84.09(△1.6)

자료: 월스트리트 저널 Market Data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14일(현지시각) 금융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며 다우존스 76.62p, Nasdaq 65.24p, S&P500 5.34p 하락하며 마감하였다.

<주요 금융 및 외환 시세>

구 분	'07년		'08년		변 동 폭(%)			
	평균	말일	10/14	10/15	전일비	'07평균비	'07말비	
환율	₩/US\$ (종가)	929.2	936.1	1,208.0	1,239.5	2.6	33.4	32.4
	₩/100 ¥	789.8	838.3	1,224.6	1,182.1	-3.5	49.7	41.0
	¥/US\$	117.8	112.6	102.3	101.9	-0.4	-13.5	-9.5
금리	국고채 (3년)	5.23	5.74	5.3	5.2	-2.1	-1.1	-9.9
	회사채 (AA-,3년)	5.7	6.77	7.9	7.9	-0.5	38.6	16.7
	CD(90일)	5.16	5.82	6.0	6.1	0.5	17.4	4.1
주가	KOSPI	1,713.20	1,897.10	1,367.7	1,340.2	-2.0	-21.8	-29.4

원자재

■ 유가, 배럴당 50달러까지 하락 가능

【한국무역협회 무역전략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골드만 삭스는 신용경색으로 인한 공포심리, 재고출하, 공급 차질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사실상 현 경제 펀더멘털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원유 수요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진단하고 유가는 4분기 평균 75달러를 기록할 것이며, 연말에는 7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금융·경제 위기가 원유수요에 더 큰 타격을 가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5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비해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전 세계 유동성자금이 계속 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어, 국제유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동안은 유가가 정유업체 평균 운영비용인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OPEC이 유가하락을 저지할 수 있을 지는 11월 18일 열리는 긴급회의의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OPEC은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유가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생산량 감축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불투명한 상황이다.

OPEC의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배럴당 55달러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주요 원자재 시세>

구 분	'07년		'08년		변 동 폭(%)		
	평균	말일	10/13	10/14	전일비	'07평균비	'07말비
로이터 제프리스 CRB	319.7	358.7	298.7	296.42	-0.8	-7.3	-17.4
DUBAI (\$/bbl)	68.2	89.3	70.93	73.75	4.0	8.1	-17.4
WTI (\$/bbl)	71.9	96.0	81.21	78.65	-3.2	9.4	-18.0
전기동 (\$/톤)	7,096.0	6,715.0	4,920	5,520	12.2	-22.2	-17.8
알루미늄 (\$/톤)	2,662.4	2,405.5	2,255	2,307	2.3	-13.3	-4.1
대두 (¢/부셸)	872.4	1,214.3	928	896	-3.4	2.7	-26.2
옥수수 (¢/부셸)	379.9	455.5	411.5	411.25	-0.1	8.2	-9.7
금 (\$/oz)	696.4	836.5	831.5	832.5	0.1	19.5	-0.5

해외시장

■ 아·태 지역 내년 GDP 성장전망 하향 조정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지부】

시티그룹은 세계적인 금융파동의 여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내년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에 비해 하락하지만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티그룹은 아·태지역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7.2%에서 6.3%로 0.9%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번 금융파동의 여파로 이 지역의 내년 경기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4%에서 2.2%로 1.1% 포인트나 하향 조정됐으며, 금년중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의 4.4%에서 4.2%로 낮아졌다.

그러나, 아·태지역의 올 GDP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와 같은 7.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오히려 당초 예상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08~'09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GDP 및 소비자물가 전망>

국가	GDP전망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			
	종 전		수 정		종 전		수 정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한 국	4.4	3.4	4.2	2.2	4.8	3.3	4.7	3.0
아태지역	7.5	7.2	7.5	6.3	7.1	4.3	7.1	3.2
방글라데시	5.7	5.6	5.7	5.5	8.0	6.5	8.0	6.2
중 국	9.8	9.4	9.8	8.8	6.5	3.4	6.3	2.0
홍콩	4.2	3.8	3.6	2.8	4.6	4.0	4.6	4.0
인 도	7.5	7.4	7.2	6.6	10.0	6.0	10.5	5.0
인도네시아	6.0	5.8	6.0	4.8	10.2	8.0	10.2	7.0
말레이시아	5.3	5.1	5.3	5.1	5.7	4.8	5.7	4.4
싱 가 폴	2.8	2.5	2.2	-1.2	6.4	2.0	6.4	2.0
스리랑카	6.0	6.3	6.0	5.7	20.5	15.0	20.5	11.0
대 만	4.2	4.6	4.0	3.4	3.8	2.1	3.6	1.9
태 국	4.8	4.2	4.0	1.0	6.4	4.5	6.3	3.2
베 트 남	6.3	6.0	6.3	5.2	24.2	12.2	23.7	10.4

자료 : citi

■ 미·EU,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 본격화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조달러 대의 구제금융 투여로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반면, 미·EU에서는 기업성과 악화와 고용감소 등 실물경제 불황이 도래하는데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구제금융조치로 신용흐름이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많은 회사들과 지자체에 대한 신용공급은 여전히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며 기업 이익 감소와 고용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거대 음료회사인 펩시의 경우 북미지역 분기 판매액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12% 하락하였으며 향후 6개 공장을 폐쇄하고 3,300명의 직원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유럽 경제전문가 역시 유럽경제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유럽경제는 이미 불황에 접어들었으며 운이 좋다면 내년 여름에나 회복될 수 있겠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분기 GDP 성장률은 오는 11월 중순에 공식 발표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지만 14일(현지시간) 공표된 유로존 8월분 산업생산은 전년에 비해 이미 0.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미 재정적자, 4,550억 달러 대로 확대

미 백악관은 2008 회계연도(2007.10~2008.9) 재정적자가 2007년도 1,620억 달러에서 대폭 확대된 4,5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적자 규모는 새로 시작되는 내년 회계연도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 의회 예산국은 경제 불황과 금융시장 문제로 내년도 재정적자가 7,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일부 민간 연구자는 1조 달러 대를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적자 확대로 미 정부가 세계자본시장에서 막대한 규모의 채권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의 유동성 사정을 다시 팽박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Apple社, 수요위축 대비 할인세일 돌입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Apple사는 금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으로 소비자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 \$1,099에 판매되고 있는 맥켄토시 노트북 PC의 가격을 \$999로 인하하여 판매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Apple社의 주식은 최대 6.5%까지 하락, 주주들은 낮은 가격인하폭은 수익만 줄어든 뿐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고경영자인 Steve Jobs는 미국의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격인하 결정은 시장점유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미국의 PC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pple社は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2009년에는 13%이상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브라질 기계장비수입업체, 금융불안 여파에도 ‘탄탄’ 【한국무역협회 상파울루대표부】

브라질 기계장비 수입업체는 최근 환율 급등락(1.60~2.20헤알/달러)에도 수입을 확대하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 브라질의 기계장비 수입은 전년동기비 25%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올 전체로는 20% 증가한 총 2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 기계장비 수입업체가 환율 불안에 따른 환차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브라질내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는데다 소규모 수출도 하면서 채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 아·태, 온라인 쇼핑산업 성장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지부】

태국의 온라인 쇼핑산업이 인터넷 보급률 증가와 소득 수준 향상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전체 인구 13%로 아태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관련 인프라도 발전하고 있어,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0년에는 27.9%에 달하면서 온라인 쇼핑 인구는 2007년 360만 명에서 2010년 1,0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역시 이 지역의 온라인 쇼핑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 인구는 지난해 1억 4,710만 명에서 2010년 4억 8,040만 명으로, 인도의 온라인 쇼핑인구는 2,810만 명에서 2억 3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출규모에서는 태국의 온라인 쇼핑산업이 2007년 59억 달러에서 2010년 208억 달러로 증가하고, 중국은 같은 기간 2,978억 달러에서 1조 4160억 달러로, 인도는 708억 달러에서 7,34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아태지역의 온라인 매출의 62%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과 인도가 성장하면서 1위 자리를 내 줄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와 싱가포르도 온라인 쇼핑 성장세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베트남, 유통시장 전면 개방

베트남은 내년 자국 유통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고 해외 거대 유통업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건으로 2009년부터 자국 유통시장을 완전 개방키로 했다. 메트로캐시&캐리(MetroCash&Carry), 카지노(Casino), 빅시버본(BigCBourbon), 팍슨(Parkson), 월마트(Wal-Mart) 등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베트남 시장을 본격 진출하게 되면, 소규모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한 대부분의 베트남 유통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 유통시장의 매출 규모는 올해 상반기 중 273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500억 달러, 그리고 2017년에는 현재 태국의 60% 수준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내년 예산을 줄이고,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도 당초 6.3%에서 5.5~6.1% 낮춰 잡았다.

주요 국가의 경제 둔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금리로 인해 내수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 달러 내년 평균 환율 예상치도 당초 9,150 루피아에서 9,500 루피아가로 상향 조정했으며, 물가상승률도 6.2%에서 7.0%로 높여 잡았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자들의 국채 수요도 줄 것으로 판단해 내년도 국채 발행액을 103조 5천억 루피아에서 54조 7천억 루피아가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적자를 매우기 위해 이슬람 채권(수쿠크)에 관심이 있는 다국적 기관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